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액 640억달러

EU가 500억달러로 대부분 차지 ... 국가간 거래 54억달러로 10배 늘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세계 이산화탄소 시장의 2007년 거래액이 640억달러(약 64조원)에 달해 2006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ETS)를 통해 처음으로 탄소거래를 실시했던 유럽연합(EU)은 2007년 거래액이 500억달러를 기록해 2006년 240억달러의 2배를 넘어섰다.

반면, EU 이외지역은 2007년 거래액이 74억달러로 5억5100만달러 늘어나는데 그쳤다.

EU의 ETS 체제 아래 유럽에 소재한 에너지 집중산업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받는데, 기업이 정량을 초과하면 배출권에 여유가 있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또 UN의 배출권 인정에 따른 국가간 거래는 2006년 4억4500만달러에서 2007년에는 54억달러로 10배 가량 증가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들은 2012년까지 1990년 수준에 비해 연평균 5% 감축해야 한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나 기업은 풍력 발전소나 태양열 발전소를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 건설하기 위한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권을 허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UN의 관료주의적 행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해 왔다.

또 유럽이 개발도상국 등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하는 규모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교토의정서 체제가 기한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세계 탄소시장의 앞날은 불명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5/09>